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대구광역시 문산리를 사례로—

박 양 춘* · 우 종 현**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는 산업화와 밀접히 연관되면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증가해 왔고,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해 왔다. 개별농가의 영농유형은 농업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하다.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미작 재배농가보다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 평균 연령이 더 젊고 경영규모가 더 크다. 시설작물 재배의 주목적은 영농을 통한 상업성의 제고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경영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익성 악화는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의 상업화와 수익성 제고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농지의 자연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그러나 농의부문의 취업기반이나 교육시설의 보완 없이는 촌락 공동체의 유지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분리문제와 농업노동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주요어 : 근교지역, 농가유형, 농업경영, 상업적영농, 임대차농지

1. 서론

1) 연구목적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추진된 공업화는 국가경제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지만 산업부문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농업의 지위가 저하되고 농촌이 파소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재덕, 1984, 이호철, 1991). 농업의 장래를 볼 때도 국제적으로는 농산물 분야의 수입개방 및 정부지원의 감축을 강요받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영농비용이 가중된 반면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영농의 지속가능성과 촌락공동체의 유지에 대한 희망이 결코 밝지 않다.

그러나 기아와 포식이 공존하는 세계의 식량문제가 인류로 하여금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이때 인류의 생존뿐 만 아니라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도 농업은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촌락공동체의 형성과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농촌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전면적인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근교농업지역은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시의존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원교농업지역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교통의 발달과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근교농업과 원교농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기는 하지만 아직도 근교농업지역은 대도시와의 높은 접근성 등으로 시설재배가 우세한 특징을 보이며, 경영규모나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집약도 측면에서 원교농업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도시적 기능의 확산에 따라 농경지는 감소하고 농외부문의 취업이 확대됨에 따라 겸업이 증가하면서 농업노동력이나 가족구성원에서도 원교농업지역과는 차이가 있다(우종현, 1996).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근교농업지역은 농업노동력 및 토지이용과 그 변화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시설작물의 재배를 통한 영농의 상업화가 진전된 근교농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미작위주의 자급적 농업을 유지하는 농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농경지의 이용과 재배작물의 결정과정이 외부적으로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의해 영향받기도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영농의 자연적 조건과 개별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영농형태가 결정(김기혁, 1991)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영농유형별 농가특성과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미작 재배농가간의 노동력과 경영규모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밝힘으로서 재배작물과 경영규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변화를 통해서 산업화이후 확대된 영농의 상업화가 농가의 경영규모 변화에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비농업부문의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특히 도시적 기능의 확산에 따라 농업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근교 농촌지역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농촌의 변화가 큰 관심이 되고 있는 198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발달이 농업공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태연구가 농업지리학에서 중요한 연

구주제가 되고 있다(I.R. Bowler, B.W. Ilbery, 1987). 따라서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영농유형별 농가특성과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농업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기본단위인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행태 분석을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시설작물 재배의 변화 추세는 농업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였고, 사례지역의 조사는 개별농가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면담조사를 하였다. 사례지역의 실제조사는 1999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2001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지역내의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11가구로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시설작물의 재배는 전혀 없이 미작재배와 농가소비용 채소류를 노지 재배하는 농가중에서는 15가구를 조사하여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미작재배 농가의 속성을 비교하였다¹⁾.

분석방법에서 영농유형별 농가특성은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미작 재배농가간의 노동력 속성과 경영주 연령별 경영규모를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변화는 개별농가에서 시설작물의 재배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1999년)의 경영규모를 비교하였다. 개별 농가의 경영규모는 피조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나타난 실제 면적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구지역은 미작재배와 더불어 비닐하우스를 통한 참외의 시설재배가 주로 행해지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로 하였다.

3) 연구지역 개관

남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북도 고령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의 북서쪽 경계인 달성군 하빈면과 접하고 있는 사례지역은 원래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이었으나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이다.

사례지역은 다사읍 소재지와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금호강을 경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인접하는 읍 소재지에는 4-5년

전부터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4개의 자연마을(자밭이, 대뱀이, 중마, 나룻가)로 구성된 다사읍 문산리는 농경지를 포함한 마을 전체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 진입로는 대구와 성주간을 연결하는 4차선의 국도 30호와 연결되어 있지만 0번과 514번 버스가 30-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하다.

루어지고 있다.

파평尹씨의 동족촌인 사례지역²⁾은 주민등록부상의 가구수(89가구)와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수(70가구)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이 재촌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타 지역에서 출가한 자녀와 함께 사는 노령 단독 구성 가구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촌하는 70가구 중에서는 35가구가 농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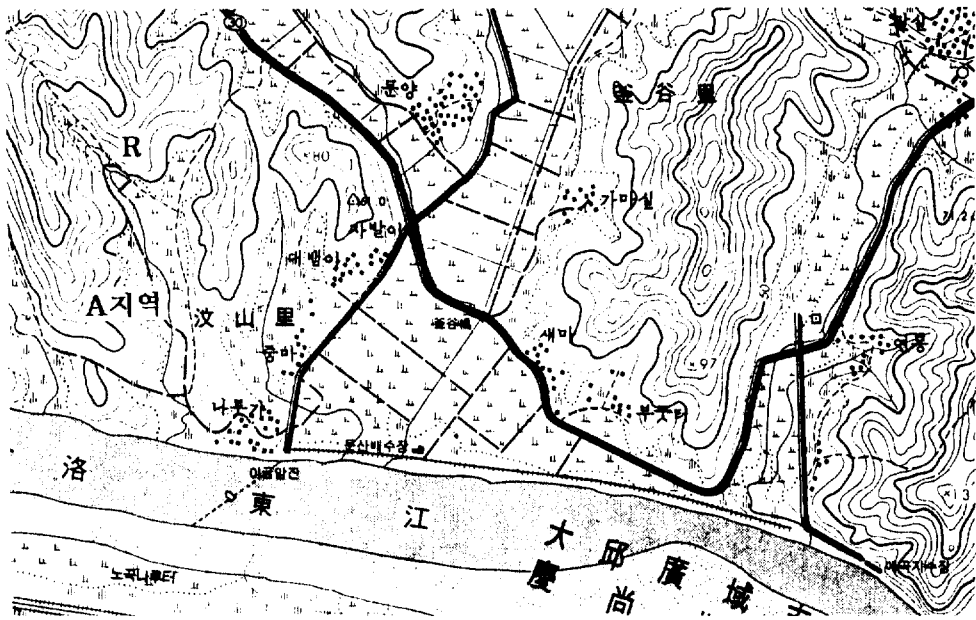


그림 1. 사례지역 지형도(1 : 25,000)

사례지역의 농경지 분포는 크게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다. 마을 뒤편 북서쪽에 위치한 농경지(A 지역)는 일부만이 경지정리 되었고 지형적인 요인으로 농경지가 계단식으로 나타나며 계곡에 위치한 저수지(지실지, R)를 통해 용수를 공급받아 미작재배를 주로 하였는데, 현재는 대구광역시 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건설에 따라 대부분의 농경지가 편입되었다. 그러나 마을의 동남쪽에 위치한 농경지(B지역)는 전부가 경지정리 되었고 양·배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미작재배와 더불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참외의 시설재배가 주로 이

농가율은 50%에 불과한데, 비농가율이 높은 것은 사례지역이 가구수에 비해서 경지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영농을 유지하기보다는 대도시와의 높은 접근성 등으로 농외부문에 취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가로 분류된 35가구 중에서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11가구로서 전체 농가의 31.4%에 이르며, 시설작물의 재배가 전혀 없이 미작과 농가 소비용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는 24가구이다. 이들 24농가 중에서 5농가는 비농업부문과 겸업을 하고 있다. 반면에 비농가로 분류된 35가구 중에서는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사례지역내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6가구를 포함하여 농업이외의 부문에 취업중인 가구가 18가구이며, 나머지 17가구는 소유농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고령과 병환에 따른 노동력부족으로 재촌임대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사례지역내에서는 농경지와 임야를 편입하여 대구광역시 상수도 정수장이 건설중이고 사례지역과 1km 정도 떨어진 다사읍 문양리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장이 건설되고 있어서 농경지의 잠식이 많다. 또한 영농수익성 악화와 도로확장에 의한 대도시와의 접근성 제고가 상호작용하면서 식당을 비롯한 도시적 기능이 확산되고 있다.

2. 시설작물재배의 변화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³⁾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와 시설작물의 재배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표 1>은 시설작물에 관한 통계가 누락된 1960년을 제외하고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면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에는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나 시설작물 재배 농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에는 그 이전 보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 결과 1995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2.6%, 전체 농가의 9.3%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다.

한편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의 가구당 시설면적은 1970년의 0.08ha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현재 0.31ha에 이르고 있어서 가구당 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에는 경지면적과 농가수는 감소하였더라도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나 시설작물 재배 농가수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당 경지면적의 증가는 산업화이후 도시적 기능의 확산에 따라 경지면적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산업화 이후 농업 노동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시설작물의 재배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농업활동이 가족 노동력의 연소나 영농을 통한 생계유지의 목적이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농의 상업화가 산업화 이후의 구조적 특성이

표 1. 시설농가의 변화*

구분 연도	경지면적 (A)	농가수 (B)	시설작물 재배면적 (C)	시설작물 재배농가 수(D)	가구당 경지면적 (A/B)	시설작물 재배면적율 (C/A,%)	시설작물 재배농가율 (D/B,%)	농가당 시설면적 (C/D)
1970년	2,135,919	2,415,034	1,305	14,842	0.88	0.06	0.61	0.08
1980년	1,984,325	2,127,196	7,297	59,808	0.93	0.37	2.81	0.12
1990년	1,807,054	1,743,230	24,470	96,818	1.04	1.35	5.55	0.25
1995년	1,657,711	1,476,827	43,440	137,603	1.12	2.62	9.31	0.31

* 농업센서스의 자료(경지면적은 논, 밭, 수원지를 합한 것임)
경지면적 단위는 ha(1970년은 단보나 평을 ha로 환산)

1970년 우리나라의 시설작물 재배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0.06%로 극히 낮고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도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시설작물의 재배가 극히 미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라면 대도시 주변지역과 원거리의 지역간에는 시설작물의 변화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2>는 대구광역시의 주변지역인 경상북도 달성군의 시설작물 재배 농가와 재배면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달성군 시설능가의 변화*

구분 연도	경지면적 (A)	농가수 (B)	시설작물 재배면적 (C)	시설작물 재배농가 수(D)	가구당 경지면적 (A/B)	시설작물 재배면적을 (C/A,%)	시설작물 재배농가율 (D/B,%)	농가당 시설면적 (C/D)
1970년	14,744	17,006	3	13	0.86	0.02	0.07	0.22
1980년	11,381	14,175	106	488	0.80	0.93	3.44	0.22
1990년	7,434	8,814	394	1,203	0.84	5.29	13.64	0.33
1995년	5,861	7,075	614	1,317	0.82	10.47	18.61	0.47

* 농업센서스의 자료(경지면적은 논, 밭, 수원지를 합한 것임)
경지면적 단위는 ha(1970년은 단보나 평을 ha로 환산)
1995년의 통계자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료임

1970년대 이후 경지면적과 농가수는 감소하는 반면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나 시설작물 재배 농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전국적인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달성군의 경우 1970년에는 가구당 경지면적이 전국 평균치와 비슷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가구당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적인 추세와는 달리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이후 대도시 주변지역일수록 농지가 비농업적 토지 이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반증할 뿐 만 아니라 급격한 농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농업인구의 이농이 적었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⁴⁾

시설작물 재배면적율과 시설작물 재배농가율에 있어서 1970년에는 근교지역인 달성군이 전국 평균치 보다 오히려 낮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의 시설작물재배 결정 요인은 대도시와의 접근성보다 특정 작물의 재배와 관련한 자연적 요인이 더 클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때는 상품작물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비록 대도시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여건이 크게 유리하지 않았고, 시설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의 발달이 미약했기 때문에 각 작물의 자연적 제약을 고려하여 시설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는 달성군의 경우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율과 농가율에서 전국적인 수준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 현재 전체 농경지의 10.5%, 전체 농가수의 18.6%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다. 한편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가구당 시설면적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규모에 있어서 전국 평균 규모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므로 산업화는 농촌에서 농업노동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를 유발했지만, 농업 공간에서는 상업적 시설작물의 재배를 증가시켰고 특히 대도시 근교지역의 경우 현저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영농목적의 시설작물 재배가 우세한 대도시 근교지역일수록 급격한 농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농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유지에는 영농의 상업화가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3. 영농형태별 농가 특성

1) 노동력 특성

영농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에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컴퓨터 기술과 결합된 로봇에 의한 무인농장의 등장으로 '농민이 필요 없는 농업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업경영에서 노동력은 토지 및 자본과 더불어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며, 농업노동력의 양과 질에 의해서 농업경영은 차이가 나기도 한다(우종현, 1996). 특히 산업화이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은 농업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인 악화⁵⁾를 초래하였다.

<표 3>은 사례지역내에서 시설작물의 재배는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표 3. 영농유형별 개별농가 속성

구분 사태농가		연령		성별		학력		영농기간		단체활동*		가족수**		재촌가족수		농업노동력수	
미작	시설	미작	시설	미작	시설	미작	시설	미작	시설	미작	시설	미작	시설	미작	시설	미작	시설
A	a	74	65	남	남	초졸	고졸	60	22	-	유(2)	3	5	3	5	2	2
B	b	68	59	남	남	중졸	초졸	43	40	-	유(5)	2	4	2	4	2	2
C	c	67	50	남	남	초졸	중졸	50	30	유(1)	-	3	6	3	6	2	2
D	d	55	42	남	남	중졸	고졸	40	17	유(1)	유(1)	7	5	5	2	2	2
E	e	71	61	남	남	무	초퇴	48	40	-	-	2	2	2	2	2	2
F	f	68	52	남	남	초졸	초졸	50	15	-	-	3	4	3	4	1	2
G	g	65	44	남	남	초졸	중졸	50	20	-	유(3)	3	5	3	5	2	2
H	h	80	60	남	남	무	중졸	60	40	-	-	2	4	2	4	1	2
I	i	71	44	남	남	초졸	중졸	50	13	-	유(4)	2	6	2	6	2	2
J	j	79	41	남	남	무	고졸	60	18	-	유(3)	2	4	2	1	1	1
K	k	61	29	여	남	초졸	고졸	40	6	-	유(4)	2	2	2	2	1	2
L	-	77	-	여	-	무	-	60	-	-	-	1	-	1	-	1	-
M	-	58	-	남	-	중졸	-	40	-	유(1)	-	5	-	1	-	1	-
N	-	47	-	남	-	초졸	-	20	-	유(2)	-	6	-	6	-	2	-
O	-	47	-	남	-	중졸	-	25	-	-	-	6	-	6	-	2	-
평균		65.9	49.7	-	-	-	-	46.4	23.7	-	-	3.3	4.3	2.9	3.7	1.6	1.9

* (1) 이장, (2) 영농회장, (3) 작목반장, (4) 영농후계자, (5) 새마을지도자

** 가족 수는 출가자와 군 입대자 수를 제외한 가족 수

전혀 없이 주곡 위주의 미작과 농가소비용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와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구분하여 영농유형별 개별농가의 경영주 특성 및 농가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시설작물 재배 없이 미작중심의 주곡농업을 유지하는 15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5.9세이며, 이들의 평균 영농지속기간은 46.4년이다. 경영주의 성별분포에서는 남자경영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2가구는 여성경영주이다. 한편 학력분포에서 볼 때 전체 경영주의 7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수준이며, 대상 농가 경영주 중에서 1/4 정도가 영농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반면에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11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49.7세이며, 이들의 평균 영농지속기간은 23.7년이다. 경영주의 성별분포에서는 여성경영주가 전혀 없고 전부가 남자경영주이다. 학력분포에서 볼 때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경영주가 3명에 불과한 반면 70% 이상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수준이다. 또한 7농가의 경영주는 이장이나 영농회장, 작목반장과 같은 영농관련 단체에서의 활동경

험이 있다.

(1) 경영주 특성

영농유형별 경영주의 연령분포를 비교할 때 미작 재배농가의 경우 40세 미만의 경영주는 없고 60세 이상의 경영주가 11가구로서 73%를 초과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화 된 경영주의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에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70세 이상의 경영주는 전혀 없고 경영주의 절반이상이 50세 이하로 나타나므로 미작 재배농가에 비해 경영주의 연령이 젊은 층이다. 이는 시설작물의 재배가 미작 재배에 비해 많은 노동력의 투하가 요구됨으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시설작물의 재배가 제한되는 사실을 반영한다.

성별분포에서는 남자경영주가 우세하며, 특히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여자경영주는 전혀 없다. 이는 농업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성에 따른 노동력의 차이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은 여전히 남성노동력 위주로 경영됨을 의미한다. 특히 시설작물 재배의 경우는 많은 비용과 더불어 집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므로 남성노동력의 존재여부는 시설작물 재배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에서 미작 재배농가에 비해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결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미작 재배농가 경영주의 학력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젊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적으로 교육기간이 길어진 결과를 반영한다.

한편 영농 지속기간을 비교할 때 시설작물 재배농가 경영주의 평균 영농 지속기간은 미작 재배농가 경영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영주의 연령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교육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졌을 뿐 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부문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영농유형은 개별농가 노동력의 양 뿐 만 아니라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는 남성노동력과 특히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경영주의 단체활동 경험유무를 볼 때 시설작물 재배농가 경영주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2) 가구원 특성

영농유형별 개별농가의 평균 가구원 속성을 비교하면 미작 재배농가의 가족수는 3.3명, 가족중에서 재혼하는 가족수는 2.9명, 농가당 평균 농업노동력의 수는 1.6명이다. 반면에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가족수는 4.3명, 가족중에서 재혼하는 가족수는 3.7명, 농가당 평균 농업노동력의 수는 1.9명이다.

따라서 출가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 수와 가족구성원 중에서 재혼하는 가구원 수를 비교할 때 미작 재배농가에 비해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미작 재배농가 경영주는 대체로 고령화 되어있고 따라서 자녀들이 대부분 출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실제 가족수와 재혼 가족수간에는 차이가 나지만 발생원인이 다르다. 즉 미

작 재배농가의 경우는 사례지역과 원거리의 취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차이가 주류를 이루면서 경영주의 연령이 50대 후반에서 현저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발생되므로 경영주의 연령이 40대 초반인 경우 그 차이가 특히 크다⁶⁾.

한편 농업노동력 수를 비교할 때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재혼 가구원 수와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로 부부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미작 재배농가에 비해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농업노동력 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농업이외의 부문에 종사할 여력이 부족한 반면, 미작 재배농가의 경우는 경영주가 노령화되어 있어서 부부와 사별한 경우가 많고, 젊은 자녀들은 낮은 영농수익성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농외부문에 취업하는 경향을 반영한다.⁷⁾

이상의 결과에서 영농유형별로 개별농가의 재혼 가족수 및 농업노동력의 구성 결과는 비슷하지만 그 원인은 상이함이 확인된다. 특히 농외부문의 취업기반이나 교육시설의 보완 없이는 비록 지리적으로 대도시에서 인접하거나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는 농촌일지라도 촌락 공동체의 유지측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분리문제와 농업노동력 부족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농외취업의 확대는 농업노동력 부족을 초래하면서 재배작물의 변화를 통한 농업의 발전에는 저해 요인으로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2) 경영규모 특성

농업경영은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경영주의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개별농가의 경영규모는 농가의 소득수준과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사례지역의 미작 재배농가와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를 경영주 연령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영농유형별 경영규모를 비교할 때 미작 재배농가보다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가구당 평균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는 미작 재배농가의 경영주가 상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표 4. 농가유형별 경영규모

경영주연령	미작 재배농가			시설작물 재배농가		
	농가수	경영규모	가구당평균규모	농가수	경영규모	가구당평균규모
- 39	-	-	-	1	4,200	4,200
40 - 49	2	1,600	800	4	14,700	3,675
50 - 59	2	11,100	5,500	3	11,800	3,933
60 - 69	5	11,850	2,370	3	8,100	2,700
70 -	6	13,200	2,200	-	-	-
계(평균)	15	37,750	(2,517)	11	38,800	(3,527)

대적으로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부족한 노동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의 경영규모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미작 재배농가의 최대 경영규모는 55세 된 경영주의 9,500평이며, 최소 경영규모는 겸업을 하는 47세 경영주로서 600평에 불과하여 이들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15배를 초과한다. 또한 미작 재배농가는 겸업을 하는 2가구의 40대 경영주⁸⁾를 제외하면 경영주가 노령화할수록 가구당 평균 경영규모는 감소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70세 이상 경영주의 평균규모는 50대 경영주의 40% 수준에 불과하여 미작 재배농가의 경우에 경영주의 연령이 경영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차이를 비교하면 최대규모는 44세 된 경영주의 5,000평이고, 최소규모는 65세의 경영주로서 2,300평으로 나타나서 그 차이가 미작 재배농가에 비해 현저히 작다. 또한 경영주 연령별 경영규모의 차이가 작을 뿐 만 아니라 사례농가 수가 단 한 가구에 불과한 40세 미만의 농가를 제외하면 40대 경영주의 평균 규모 보다 50대 경영주의 평균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경영규모의 차이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는 상업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부족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도 60세 이상의 경영주 연령층에서는 경영규모가 현저히 작아지는 사실이

확인됨으로 시설작물 재배에도 경영주의 연령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재배작물에 따른 농가 유형 결정에는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미작 재배농가의 평균 경영규모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농가간의 편차가 오히려 적은 것은 부부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현 상태에서는 상업성 제고를 위한 시설작물 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더라도 경영규모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4. 시설작물재배 농가특성

1) 작물의 도입과 확산

사례지역에서 시설작물 재배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며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 이후 상업성의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한편 전체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경영주의 연령이 50세 이전에 시설작물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음 시작할 당시의 경영주 평균 연령은 37.4세로 나타났다.

개별농가의 시설작물 재배동기는 농가의 노동력 연소가 목적이 아니라 시설작물을 재배하던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계승한 경우(1가구)를 포함하여 소득증대가 직접적인 이유(10가구)이다. 사례지역에서는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면서 노지 참외를 재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외의 시설재배를 했던 농가에

의해 197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시설작물 재배와 관련해 특별히 기술지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의 확산과정과 재배작물의 선택은 미작재배 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5가구) 하면서 이웃의 성공적 재배에 유인(5가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시설작물재배 지역에서 초기의 재배작물 선택에서는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경험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주변에서 성공적으로 시설재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업성을 고려한 개별 농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의 설치장소를 현재의 위치에 선택한 이유는 소유농지이기 때문(2가구)이 아니라 재배작물과 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토지의 자연적 조건(5가구)과 농가나 지하수와의 접근성(4가구)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토지의 자연적 조건 중에서는 형태와 규모가 중요하게 작용된다⁹⁾. 이는 시설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될수록 토지의 소유관계 보다는 농지의 자연적 조건에 의해 토지이용이 결정되고 따라서 농지의 임대차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가구당 평균 0.3ha 정도의 시설규모를 나타내는 사례지역에서는 노령이어서 시설재배를 그만 두기를 희망하는 1가구를 제외하면,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농가(1가구)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지속(9가구)하겠다는 농가가 훨씬 많다. 이는 시설작물 재배가 미작 재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과중한 노동력의 부담과 불안정한 시세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편 시설재배와 관련한 기술지도는 주로 이웃(6가구)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약방이나 종묘상(3가구)이 원예시험장(1가구)이나 농촌지도소(1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실에서 볼 때, 앞으로 시설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배작물의 선택이나 기술의 파급에서 쇠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육성이 특정 작목반이나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설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기술지도의 부족(1가구)이나 과도한 노동(1가구) 보다는 출하시기가 집중됨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9가구)을 최대의 애

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지역내에서는 개별농가가 직접 판매하거나 외지의 상인에게 현지 판매를 하는 경우는 없고 공판장이나 상회를 통해 경매하거나 납품을 하고 있다. 이때 공판장과 상회에 나누어 출하하는 농가(2가구) 보다는 전량을 공판장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9가구)가 훨씬 많다. 이것은 상회에 납품하는 것이 가격에서는 다소 유리하더라도 공판장을 통한 경매가 용이하고 자금의 회수가 유리¹⁰⁾하기 때문이다.

2) 경영규모 변화

농업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농촌에서 개별농가의 경영규모는 농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영농규모의 변화는 농지의 소유권 변동과 임대차에 의해 발생되는데, 대도시에서 원거리의 농업지역에 비해 근교농업지역은 농지임대차가 더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종현, 1996). <표 5>는 사례지역에서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를 시작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여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개별농가에서 시설작물 재배를 시작할 당시에는 미작 재배 없이 순수하게 시설작물만을 재배했던 농가가 없으며 가구당 평균 경영규모는 1.1ha 정도이다. 개별 농가마다 시설작물의 재배를 시작한 시기는 상이하지만 시작 당시의 경영규모를 볼 때 전체 경영지의 54.3%가 임대차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지가 없는 순수 자경농가는 3가구이다. 반면에 소유농지가 전혀 없는 순수 임대농가도 2가구이다. 재배작물별 농지소유형태를 보면 시설작물 재배지는 69.0%가 임대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지의 비중이 50.0%인 미작재배지 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편 소유농지 중에서 휴경농지는 전혀 없으며 전체 경영지의 22.8%가 시설재배지로 이용되었다.

한편 1999년 현재에도 미작재배 없이 순수하게 시설작물만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 것은 시설작물 재배 시작 당시와 같다. 그러나 임대농지가 전혀 없는 순수 자경농가는 단 한 가구에 불과한 반면 소유농지가 없는 순수 임대농가는 여전히 2가구(f,

표 5.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단위 : 평

구분 사례 농가	시설재배 시작연도	미작재배(a)		미작재배지 중 임차지		시설재배(b)		시설재배지 중 임차지		휴경지		경영규모 (a+b)	
		시작 당시	1999년	시작 당시	1999년	시작 당시	1999년	시작 당시	1999년	시작 당시	1999년	시작 당시	1999년
a	1978	3,600	1,300	1,600	0	400	1,000	400	1,000	0	700	4,000	2,300
b	1980	3,000	4,000	1,500	2,500	800	900	800	900	0	0	3,800	4,900
c	1983	1,400	1,800	0	1,500	500	1,600	0	900	0	1,000	1,900	3,400
d	1983	4,200	2,400	0	0	900	800	0	0	0	1,000	5,100	3,200
e	1984	1,400	3,000	0	1,000	600	900	0	900	0	0	2,000	3,900
f	1986	600	1,500	600	1,500	900	2,000	900	2,000	0	0	1,500	3,500
g	1988	4,000	2,200	4,000	2,200	600	800	0	0	0	0	4,600	3,000
h	1988	2,400	2,600	1,000	1,000	600	1,600	600	1,600	0	0	3,000	4,200
i	1989	5,000	3,200	4,500	2,700	900	1,800	900	1,800	0	0	5,900	5,000
j	1990	1,800	1,500	0	0	400	2,000	400	2,000	0	0	2,200	3,500
k	1993	1,000	2,400	1,000	2,400	1,800	1,800	1,800	1,800	0	600	2,800	4,200
계	-	28,400	25,900	14,200	14,800	8,400	15,200	5,800	12,900	0	3,300	36,800	41,100

k)가 존재한다. 특히 순수임차농가는 시작당시에 비해 경영규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경영규모확대가 소유농지의 확대보다는 임대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상업적 시설작물을 재배하더라도 현재의 농촌현실에서는 농업소득을 통한 소유농지의 확대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가구당 평균 경영규모를 비교할 때 경영규모가 감소한 4가구(a, d, g, i)에 비해 증가한 농가가 7가구로 훨씬 많으며 전체 면적에서도 12%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배작물별로 구분하면 미작 재배면적은 시작 당시와 비교할 때 경영규모가 축소된 5가구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농가가 6가구로 더 우세하지만 전체면적으로는 감소하였다. 반면에 시설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한 농가가 단 한 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 10가구는 모두 시설면적의 규모가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전체면적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도시적 기능의 확대에 따라 근교농업지역에서는 경영규모가 대→중→소의 변화과정으로 축소¹¹⁾(박찬석, 1982)된다는 사실은 영농의 상업화가 진전된 농업지역에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즉 대도시

주변지역 농가에서 부족한 농업노동력과 낮은 영농 수익성 때문에 미작농업의 경영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상업적 시설작물의 재배는 오히려 증가하므로 영농의 상업화는 농업과 농촌의 유지에 중요한 인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재배작물별 농지 소유형태를 보면 미작 재배지는 57.1%가 임차 경영되고 있는 반면 시설작물 재배지는 84.9%가 임차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의 전반적인 농지 임대차 활성화 추세는 사례지역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농지임대차는 영농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 미작재배지 보다는 상업적 시설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의 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 개별농가의 소유농지 중에서 휴경농지가 있는 농가는 4가구(a, c, d, k)에서 확인된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휴경지의 발생이 증가한 사실을 볼 때 부족한 농업노동력과 영농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현실에서는 비록 소유농지일지라도 영농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는 휴

경을 하는 반면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발생되며, 임대차는 개별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에는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영농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지의 자연적 조건이 농업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대도시 근교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의 상업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적인 경영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작 재배지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러하다. 또한 부족한 농업노동력과 영농채산성 악화는 영농조건이 열악한 농지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며 영농규모의 확대는 농지임대차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데, 이때 농지의 자연적 조건은 중요하게 작용된다.

5. 결론

산업화는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농업노동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저하를 유발했지만, 농업 공간에서는 상업적 시설작물의 재배를 증가시켰고 특히 대도시 근교지역의 경우 현저한 특성을 보인다.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영농유형별 농가특성과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변화특성을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주 및 가구 구성원의 측면에서 볼 때 근교 농업지역 농가의 영농유형은 농업노동력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과 관련이 있다. 농가유형에 관계없이 부부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며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서는 특히 경영주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영농유형별 농가의 경영규모는 미작 재배농가보다는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평균적으로 훨씬 더 크다. 또한 개별농가의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연령과 관계가 있는데, 미작 재배농가는 경영주가 노령화될수록 경영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경영규모의 편차가 작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편차가 작은 것은 부부중심의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노동력의 투하량이 많이 요구되는 시설작물 재배에는 영농규모 확대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작물 재배의 주목적은 영농을 통한 상업성의 제고가 가장 큰 원인이며, 재배작물의 확산과정에서는 초기 경작자의 성패여부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주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서 가족부양에 따른 가계지출이 많고 따라서 소득증대를 위한 상업적 시설작물재배를 선호하지만 부부중심의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경영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익성 악화는 적극적인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의 매입보다는 임대차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영농조건이 유리한 농지를 중심으로 임대차가 발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의 상업화가 중요하며, 농지의 자연적 조건과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영농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방과 농업보호의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이 농업의 발전을 통해 삶의 공간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영농조건 개선과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질적 변화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촌락 공동체의 유지측면에서 농외부문의 취업기반이나 교육시설의 보완 없이는 비록 지리적으로 대도시에 인접하거나 높은 수익성이 유지되는 농촌일지라도 가족 구성원의 분리문제와 농업노동력 부족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註

- 1) 농업경영을 영농목적별로 구분하면 크게 상업적 영농과 자급적 영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작물의 재배 방법에 따라서는 자연적 조건에 적용하는 경우와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별농가의 영농목적은 상업적 농가와 자급적 농가로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미작농업의 경우 농가소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배를 통한 상업성 제고를 목

대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농가특성과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변화

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다. 그러나 미작재배는 비용과 수익을 고려할 때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면에 미작을 제외한 채소류 등은 상업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평지와 상이한 기후조건을 역이용하여 고랭지지역에서 재배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시설을 설치하여 참외와 같은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비록 상업적 목적에서 대규모의 미작농업을 하더라도 시설의 설치가 없는 농가를 비교하였는데, 전자를 시설작물 재배농가라 하며 후자를 미작 재배농가라 한다.

- 2) 마을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경기도 파주군 문산포에서 살던 尹氏가 이 곳에 이주해 살면서 그의 고향 이름을 따서 汶山이라 불렀다고 한다(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 1984).
- 3) 1970-1980년과 1980-1990년 사이에 농가인구는 각각 31.5%와 38.5%씩 감소하였고 이 기간에 농가호수는 각각 11.9%와 16.9%씩 감소하였다(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 4) 1970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5년 현재의 경지면적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는 77.6%가 농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달성군은 39.7%에 불과하다. 또한 농가수의 변화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는 61.1%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달성군은 41.6% 수준이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농지의 전용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훨씬 더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지와 농가의 감소폭을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는 농가의 감소폭이 농지의 감소폭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만 대도시 주변지역인 달성군의 경우는 농가의 감소폭이 농지의 감소폭보다 오히려 더 작다.
- 5) 1970년대 중반까지는 농업종사자의 절대수가 증가하였으나 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이농에 따라 농업노동력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농림어업 취업자중에서 50세 이상의 노령노동력의 구성비는 1965년 18.3%에서 1991년 59.2%로 상승했으며 노령으로 실제 영농능력이 없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력의 비율은 1965년 38.3%에서 1991년 46%로 상승하였다(한국사회경제학회, 1994).
- 6) 사례지역은 대도시 행정구역내에 위치해 있어서 원교 농촌지역이나 대도시 행정구역 밖의 근교 농촌지역에 비해서(우중현, 1996) 가구원의 분리가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가구원의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농가를 고찰하면 경영주 연령별로 발생원인의 차이가 있다. 미작 재배농가 중에서 가구원의 분리가 나타나는 D농가와 M농가의 경영주는 각각 55세와 58세이며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직장관계로 서울이나 안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

문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시설작물 재배농가 중에서 가구원의 분리가 나타나는 d농가와 j농가는 경영주가 각각 42세와 41세인데 이들의 자녀는 현재 대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이들을 돌보는 어머니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은 사례지역이 초등학교와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비록 대구광역시역내에 위치하지만 중·고등학교의 진학에는 학구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부모들은 교육여건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학구지역내에서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가족구성원이 분리된 채 생활하다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하고 난 후에는 다시 사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통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 7) 영농유형별 재촌가구원 수와 농업노동력 수를 비교할 때 미작 재배농가의 경우 재촌 가구원 중에서 비농업인구가 19명이며,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20명이다. 이들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면 미작 재배농가는 취학(8명), 취업(5명), 질병(4명)의 순이며 노령과 일시적 실업이 각 1명이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경우는 취학(11명), 취업(3명)과 노령(3명), 질병(2명) 그리고 일시적 실업이 1명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대도시 근교지역에서 가구원 수와 농업노동력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의 취학이다. 그러나 영농유형별 볼 때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15.0%가 취업 때문인 반면 미작 재배농가는 26.3%로 높게 나타난다.
- 8) 각각의 경영주는 양수장관리와 식당을 겸업하는 농가와 제과배달을 겸업하는 농가이다.
- 9) 사례지역에서는 연작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4-5년 동안 참외를 재배한 이후에는 시설설치 장소의 이전을 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각형의 토지 형태를 선호한다. 또한 1棟(200평)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는 연간 약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건비와 영농비를 고려할 때 5棟(1,000평) 정도는 되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설치장소는 배미의 크기가 1,000평 이상이면서 직사각형이고 농가와 도로에서 근접한 농지를 선호한다.
- 10) 공판장의 경매를 통하는 경우는 비록 가격은 다소 낮더라도 출하한 다음날(경매 당일)에 대금의 결제가 가능하고 수송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편리하다. 그러나 상회를 통해 위탁판매를 하게 되면 상품의 판매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대금의 결제를 받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이 늦고 수송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 11) 대도시 근교지역인 동촌지역을 사례로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농가의 경영규모는 도시화에 따라 대규모 경영농가의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경영농가의 비중이 증가하여 대체적으로 농가의 경영규모가 대→

중→소의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같은 근교지역에서도 도심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도시적 산업부문으로의 겸업이 증가하면서 농가 경영규모의 축소가 현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박찬석, 1982).

文獻

경상북도, 2001, 2001년도 농정시책, 농업인·유관 기관 합동회의 자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4, 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 경북인쇄소.

김기혁, 1991, 촌락과 농경지, 지리학회보, 33.

박찬석, 1982, 근교농업 지역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이문사.

민승규, 모리시마 마사루, 1997, 기아와 포식의 세계식량, 삼성경제연구소.

손용택, 1991, 수도권의 토지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지리, 12, pp.53-68.

우종현, 1996, 한국 임대차농지의 공간분포와 입차 농가 행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종현, 2000, 대도시내 영농조건 불리지역의 농업

경영특성 -대구광역시 본리마을을 사례로-,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6(3), pp.37-52.

이재덕, 1984,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인구이출현상 - 청원군 옥산면의 사례연구-,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13, pp.267-291.

이호철, 1991, 산업화와 농촌경제, 한길사.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2, 한국공간환경의 재인식, 한울.

한국사회경제학회, 1994, 한국경제론 강의, 한울.

형기주, 1993, 농업지리학, 법문사.

Jones, E., Eyles, J., 1977, *An Introduction to Socia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De Blij, H.J., Muller, P.O., 1994, *Geography-realms, regions, and concepts - 7ed.*, John Wiley & Sons.

Bowler, I.R., 1984, Agri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8(2), 255-262.

Bowler, I.R., Ilbery, B.W., 1987, Redefining Agricultural Geography, *Area*, 19(4), 327-332.

The Characteristics of Farm Household in Suburban Areas Classified by the Farming Types and Changes of Facility Farm Household's Management Size

-A Case Study of Munsanli, Taegu-

Yang Choon Park* · Jong Hyeon Woo**

Summary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that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farm household in suburban areas classified by the farming types are as follows.

When it was looked into with the side of farm household and his family, the type of the farm household in suburban area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farming labor rather than the quantity of it.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farm household, it depends upon the family labor (usually men and wives). And the age of farm manager is an important part in the quality of farming labor.

The size of the farm household is related to the individual farming labor. The size of self-sufficient crops(mainly rice) farm household will be small as the farmer gets to be old. But the size of commercial crops farm household has less tendency to change in terms with the age of farm manager.

The farming commercialism takes an important part i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suburban agricultural areas. But, in fact, there is

a shortage of farming labor. So the physical condition of farmland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agricultural durability.

After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we won't have enough chance to solve the problem of family member separation and shortage of farming labor even though it is in the suburban area or in the profitable farm until we give them more enough chance to get a job(except farming) and the better education infrastructure. To make matters worse, the aggravation of farm household's economy due to unstable price of farming products' threatens the agricultural durability. Consequently, in order to get a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 qualitative change with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nditions and of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is needed.

Key words : suburban areas, the type of farm household, agricultural management, commercial farming, leased farmlands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